

## 이탈리아 시민사회의 전개와 현재

김 종 법\*

본 논문에서는 아직까지 개괄적인 수준에서도 소개가 되어 있지 않은 이탈리아 시민사회의 전개과정과 현재의 모습을 간략하게 선보이고자 한다. 그동안 그람쉬를 통하여 이론적으로는 어느 정도 소개가 되어 있는 '시민사회론'이 아닌 현실적이고 실제적 의미에서 이탈리아 시민사회의 형성과 배경 등을 역사적이고 정치적 사건들을 중심으로 개괄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전개하고자 하는 중요한 요점은 하나의 이론적 대비로서 이탈리아와 한국의 시민사회를 비교하자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사회적으로 유사한 배경을 가진 이탈리아 시민사회의 모습을 한국적 시각에서 조명함으로써 현재의 우리나라의 시민사회 상황에 대한 반면교사의 예를 찾고자 하는 것이다. 우리 사회 안에서 '변혁'이나 '진보'의 대명사였던 시민사회의 모습을 상황적으로 유사한 배경을 갖지만, 사상적으로나 제도적으로 우리와는 다소 이질적인 이탈리아의 시민사회를 통해 투영해보고자 하는 것이 본 논문의 주요 목적인 것이다.

이를 위해 이탈리아 시민사회 형성의 이론적 배경과 간략한 역사적 형성 과정을 그람쉬와 현대 사상가들을 통하여 돌아보고, 이를 현대적으로 중요한 역사적 분기점이라 할 수 있는 '68운동의 사회적 의의를 통하여 되짚어 보겠다. 또한 이후 형성된 시민사회의 구조적인 특징과 성격 등에 대하여도 간략하게 돌아보고, 현재 이탈리아 시민사회의 상황을 진보적 관점에서 재구성하는 것을 끝으로 이탈리아 시민사회의 전체적인 모습을 개괄해보고자 하는 것이다. 또한 가능하다면 이와 같은 이탈리아 시민사회의 모습이 우리나라 시민사회와는 어떤 차이점을 가질 수 있으며, 어떤 과정상의 차이가 있는가를 살펴보는 수준에서 본 논문의 결론을 대신하겠다.

주제어 : 이탈리아, 시민사회, 그람쉬, 사회변혁운동, '68운동, NGO

\* 계명대학교 겸임교수 및 한국외대 시간강사

## 1. 들어가며

1990년대 이후 한국에서 시민사회의 역량은 상당한 양적·질적 팽창을 거듭했다는 것이 일반적 평가이다. 이후 현재까지 한국사회를 이끄는 주축으로서 중요한 자리 매김을 했으며, 항상 ‘진보’라는 개념과 함께 간주되었던 시민사회 내부가 이제는 ‘진보’라는 일방적 수식어 외에도 ‘보수’나 ‘중도’라는 새로운 성격과 기준이 첨가될 정도로 다양성을 더해 가고 있다. 이와 같은 한국 사회 안에서의 시민사회의 역할과 변화의 모습이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한 판단은 선불리 단정하기 어려울 정도이다.

현재의 상황에서 한국 시민사회의 보다 바람직한 증거 틀을 마련하고 비교할 수 있는 대상으로서 가치를 지닐 수 있는 이탈리아 시민사회의 소개는 일정 부분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이미 한국의 많은 학자들에 의해 소개되어 온 이탈리아 사회와 정치사상에 대하여 본 논문에서 일일이 열거하기는 어렵지만, 1980년대 초반에 소개되기 시작한 그람SCI(Gramsci)를 계기로 다양한 정치적 해석과 연구들이 있어 왔다.<sup>1)</sup>

1) 지면상 주요 역사와 논문만을 밝히는 것으로 대신하겠다. Adamson, W. 1980. *Hegemony and Revolution*,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권순홍 역. 1985. 학민사; Anderson, Perry. 1977. "Antinomies of Antonio Gramsci." *New Left Review*, no. 100. 김현우 역. 1995. 갈무리; Bobbio, Norberto. 1987. *Which Socialism?: Marxism, Socialism and Democracy*, Oxford: Polity Press. 구갑우·김영순 역. 1992. 의암; Boccock, Robert. 1986. *Hegemony*, London: Tavistock Publication. 이향순 역. 1991. 학문과 사상; Bogg, Carl. 1976. *Gramsci's Marxism*, London: Pluto. 강문구 역. 1991. 한울; Fiori, Giuseppe. 1986. *Gramsci*, Bari: Laterza. 신지평 역. 1991. 두레; Gramsci, Antonio. 1991. *Marxismo e Letteratura*, Roma: Istituto di Antonio Gramsci. 조형준 역. 1992. 새물결; Gramsci, Antonio Edited by Richard Bellamy. 1994. *Pre-Prison Writings*, Cambridge University Press. 김현우·장석준. 2001. 갈무리; Hoare, Q. and Nowell, Smith, G. 1975. *Selections from the Prison Notebooks of Antonio Gramsci*(Notes on Politics), New York: International

지리적으로 반도국가라는 점에서 한국과 유사한 외형적 특색 외에도 많은 면에서 한국과 이탈리아는 역사적으로나 상황적으로 유사성을 발견할 수 있다. 첫 번째 유사성은 지역문제라는 주제에서 찾을 수 있다. 이탈리아의 경우 1861년 피에몬테(Piemonte)를 지배하던 사보이 왕가를 중심으로 통일 한 뒤 150여 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지역문제로서 남부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로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은 영호남 문제와 같은 지역문제의 볼모가 된 한국의 상황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두 번째는 이탈리아가 통일 이후 불안정한 사회구조로부터 기형적으로 태어난 파시즘이라는 전체주의는 한국에서 전쟁 이후 발생한 일련의 과정에서 나타난 전체주의적 사회요소와 많은 면에서 시사점을 가질 수 있다. 세 번째는 이탈리아가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에 의한 균정을 거치면서 결국 미국의 대(對)유럽 전략의 일환으로 진행되었던 ‘마셜 플랜’의 직접적 수혜자였을 뿐만 아니라 파시즘이라는 악령을 깨끗이 청산하지 못했던 불안한 사회구조로서 출발했다는 사실은 우리나라가 해방 이후 미군정을 거치면서 굴곡된 역사적 상황과 상당히 유사하다. 네 번째는 이탈리아의 경우 중세 봉건적 사회구조 유지의 가장 커다란 정신적·사회적 부담이었던 카톨릭이 파시즘을

---

Publishers. 이상훈 역. 1986. 거름; Joll, J. *Gramsci*. 1977. London: Fontana Modern Masters. 이종은 역. 1984. 까치; Kebir, Sabine. 1980. *Antonio Gramscis Kulturkonzeption*, Munchen. 이철규. 1994. 백두; Mouffe, C. 1977. *Gramsci and Marxist Theory*; London: Routledge and Kegan Paul. 장상용·이기용 역. 1992. 녹두; Sassoon, Anne S. 1979. *Approaches to Gramsci*. 최우길 역. 1984. 녹두; A. S. Sassoon 및 J. Femia 외. 1977-9. *Lo Stato, la classe e l'egemonia*. 임영일. 1985. 풀빛; Simon, Roser. 1982. *Gramsci's Political Thought*, London: Lawrence and Wishart. 김주환 역. 1985. 청사. 이상의 역사 이외에 다음과 같은 주요 논문이 있다. 강옥초. 1997. “초기 그람쉬의 사상과 남부주의.” 『서양사론』 No. 55; 김성국. 1991. “안토니오 그람쉬의 헤게모니 이론.” 『사회비평』 No. 5; 김세균. 1992. “시민사회의 이데올로기적 함의 비평.” 『이론』 No. 2; 이해영. 1992. “그람쉬의 시민사회 개념.” 『이론』 No. 23; 이해영. 1997. “포스트 모던 시대의 그람쉬 역사주의.” 『역사비평』 No. 36; 최장집. 1991. “대중민주주의의 방향과 조건.” 『사회비평』 No. 5. 등이다. 그 외의 논문과 역서들은 편의상 모두 소개하지 못했다.

통한 부활과 종전 이후 미국과의 결탁을 통해 다시 한번 사회의 중심 구조 편입됨으로써 진보와 종교적 질곡이 혼합된 이질적 사회구조를 갖고 있다는 점은 우리나라가 현재까지 여전히 유교적 허구 속에 사로잡혀 사회변혁의 순간이나 기회에서 절충적 입장을 취하도록 하여 봉건적 잔재를 일소하지 못하게 된 사회적 상황 등 여러 면에서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역사적·사회적 상황에서 성장한 이탈리아 시민 사회의 모습을 한국적 시각에서 조명함으로써 현재의 우리나라의 시민사회 상황에 대한 반면교사의 예를 찾고자 하는 것이다. 우리 사회 안에서 '변혁'이나 '진보'의 대명사였던 시민사회의 모습을 상황적으로 유사한 배경을 갖지만, 사상적으로나 제도적으로 우리와는 다소 이질적인 이탈리아의 시민사회를 통해 투영해보고자 하는 것이 본 논문의 주요 목적이다.

이를 위해 이탈리아 시민사회 형성의 이론적 배경과 간략한 역사적 형성 과정을 그람쉬와 현대 사상가들을 통하여 돌아보고, 이를 현대적으로 중요한 역사적 분기점이라 할 수 있는 '68운동의 사회적 의의를 통하여 되짚어 보겠다. 또한 이후 형성된 시민사회의 구조적인 특징과 성격 등에 대하여도 간략하게 돌아보고, 현재 이탈리아 시민사회의 상황을 진보적 관점에서 재구성하는 것을 끝으로 이탈리아 시민사회의 전체적인 모습을 개괄해보고자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이탈리아 시민사회의 모습이 우리나라 시민사회와는 어떤 차이점을 가질 수 있으며, 어떤 과정상의 차이가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으로 결론을 대신하겠다.

## 2. 이탈리아 시민사회의 이론적 배경

시민사회에 대한 이론적 시작을 어디에서 출발할 것인가의 것은 매우 어려운 문제이다. 고전적 의미에서 자연법론자들인 홉스(Hobbes)나 루소(Rousseau) 등에서 시작할 것인지, 아니면 현대국가 이론과 함께 시작하여 그 기원을 헤겔(Hegel)에게서 구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그리 간단한 것이 아니다. 또한 그 의미와 영역을 가르는 문제 역시 쉬운 일은 아닐 것이다. 마르크스나 헤겔의 시민사회와 그람쉬의 시민사회 개념이 다소 다르다는 점이나, 하버마스의 공공영역 분석과 의사소통 이론 및 생활세계론이 갖는 이론적 중요성, 푸코의 권력 개념의 분석 등을 모두 고려한다는 것은 본 논문에서 논의하고자 하는 범위를 넘어서는 일일 것이다. 다만, 시민사회 이론과 개념상의 발전 역시 각 국가의 사회적이고 정치적 상황과 관련하여 차이를 두고 전개되었다는 사실은 이미 여러 연구자들이 지적해 온 바일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탈리아 시민사회라는 대상의 영역에 국한하여 그람쉬로부터 출발하는 현대적이고 이탈리아적인 의미에서 시민사회의 이론적 배경이 될 수 있는 범위와 개념에 국한하여 논의해 보겠다. 이탈리아 공산당의 창당 주역이었으며, 후대의 많은 비평가들에게 서구의 독창적 마르크스주의자로 평가받는 안토니오 그람쉬는 ‘시민사회’라는 개념을 독립적인 주제로 하여 발전시키지는 않았다. 무엇보다 이탈리아의 역사적 전개과정에서 파생되었던 여러 사회문제들을 분석하고 규명하는 과정에서 ‘국가’, ‘혁명’, ‘헤게모니’ 등의 개념을 발전시키면서 상호 복합적으로 등장한 개념이었으며, 이론적인 측면에서는 주개념을 설명하기 위한 보조적 개념으로서 사용되던 것이었다.

또한 그람쉬 개념의 출발점 역시 역사적 형성과정에서 등장하는 시민사회(Società civile)로서 국가와 대비되는 관점에서 이야기하고 있다.<sup>2)</sup> 그러나 실질적으로 자신의 글에서 그람쉬는 ‘시민사회’라는 용어를 표현하고자 하는 주개념과 목적에 따라 혼란스럽게 사용하고 있다. 특히 ‘국가’를 시민사회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정치사회’라는 의미로 사용하기도 하였으며, ‘혁명’의 과정을 설명할 경우에는 ‘국가’보다 포괄적인 의미로 시민사회를 사용하기도 하였다.<sup>3)</sup>

이에 대한 평가는 다양한데, 일반적으로 두 가지 해석으로 대표된다. 하나는 노르베르토 보비오(Norberto Bobbio)의 글<sup>4)</sup>로 대표되는 방향으로 시민사회를 상부구조로 보면서 시민사회를 물질적 관계의 총합이 아닌 이데올로기적이고 문화적 관계의 총합으로 해석하는 경향이다. 두 번째 방향은 시민사회를 상부구조로 인식하지만 이는 상부구조와 하부구조와의 통일성에서 유래한 것으로 보는 견해로 보비오의 견해와 다소 상반된 입장을 취하고 있다.<sup>5)</sup> 이를 대표하는 비평가로는

2) 그람쉬는 시민사회의 개념을 처음에는 역사적 사건이나 다른 개념의 분석을 통하여 접근하였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지식인 문제’나 ‘르네상스 또는 리소르지멘토’의 분석이었으며, 이 과정에서 국가나 정치사회와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시민사회를 정의하였다.

3) 이에 대한 근거로 주로 사용되는 글들은 Gerratana ed. 1975. *Quaderni del carcere*, Torino, Einaudi판을 기준 하면 다음과 같다. 주로 정치사회와 시민사회의 비교를 통한 글들로 ‘국가’와의 관계 설정과 헤게모니 개념과 관련하여 많이 사용하고 있다. Società civile e società politica에 대한 글은 pp.662, 691-92, 703-4, 734, 763-4, 751-2, 752-6, 763-4, 800-1, 801, 862-3, 865-7, 868, 876, 937, 1020-1, 1028-9, 1253-4, 1589-90(460), 1615-6(859-60), 2287-8(372). 등이 있다.

4) Bobbio, N. 1969. *La società civile in Gramsci*, in *Atti del Convegno internazionale di studi gramsciani*(Calgiari, 23-27, aprile 1967), Roma: Riuniti, vol. I, pp.75-100. 참조.

5) 여기에서 텍시에르는 상부구조와 하부구조의 통일성에서 시민사회를 분석해야 하며, 이는 ‘역사적 블록’이라는 개념과 관련한 분석을 의미하며, 시민사회가 상부구조적 성격을 갖는다 할지라도 결국 경제적인 것에 귀착되는 하부구조적 성격으로 통합된다고 보았다. 특히 그람쉬의 글 중에서는 *Quaderni del carcere*, p.1561.에서 언급하고 있는 다음의 구절은 이와 같은 근거로 제시되고 있다. “경제개혁의 선행 없이 사회구조와 경제의 변화 없이 억압받는 사회계층의 문명적 고양과 문화적 개혁이 존재할 수 있겠는가? 결국 지적이고 도덕적 개혁은 경제개혁의 강령들과 결부되어야만 한

자크 텍시에르(Jacques Texier)나 자빈 케비어 등이 있다.

여기서 그람쉬의 시민사회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전개시키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국가와 시민사회와의 관계나 또한 시민사회 자체의 이론적 성격을 논하는 것은 지면상으로나 주제 면에서도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람쉬 시민사회 개념의 현실적 중요성은 당대 이탈리아 사회분석과 관련하여 시민사회가 갖는 한계, 즉 이탈리아 시민사회의 주요 특징들에 대한 분석을 이탈리아의 역사와 정치적 현실에서 찾아내려고 했던 점일 것이다. 이는 어쩌서 그람쉬 시민사회 개념이 현실적으로 생생한 분석의 계기를 제공할 수 있었으며, 이를 통해 이탈리아와 차이가 있는 현대 산업사회나 자본주의 사회 분석에 전형을 제시할 수 있었던가에 대한 답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람쉬가 살고 있던 시대의 이탈리아 사회 모습은 신생 통일국가로서 자본주의 체제가 막 시작되었고, 산업혁명을 겪지 않았던 국가 경제가 복부를 중심으로 어느 정도의 산업혁명을 겪기 시작하면서 자본주의적 폐해와 모순을 내재적으로 안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 이는 그람쉬가 이론적으로 가장 먼저 성찰의 계기로 삼았던 ‘남부문제’라는 주제를 통해 지식인, 헤게모니, 혁명과 국가의 문제로 발전시키게 되었던 것이다. 또한 남부에 대한 사회적 구조분석의 틀에 사용한 두 가지 주요 개념은 후대 비평가들과 이탈리아 사회를 분석하는 이들에게 아주 유용한 기준과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그것은 바로 후견인주의(Clientelismo)<sup>6)</sup>와 변형주의(Trasformismo)<sup>7)</sup>라는 개념의 적용과 분석이

다. 다시 말해 경제개혁의 강령들은 모든 지적이고 도덕적인 개혁이 표출되는 구체적인 방법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앞의 책, pp.136-157., 및 Biagio Muscatello ed. 1990. *Gramsci e il Marxismo contemporaneo*, Roma: Riuniti, pp.25-34. 참조.  
6) 대토지 소유자와 그의 지배를 받는 소작농이나 계약 관계의 농민이나 평민을 모두 총칭하여 부르는 말로 후견인이라 바로 이와 같은 계약을 통해 맺어진 유력한 권력자와 그의 보호와 지배를 받는 이들을 의미한다. 절대절명의 권력을 쥐었던 대토지 소유자들의 절대적 권한에 기대어 자신들의 영향력과 지위를 보전하는 방식을 의미

었다.

따라서 그람쉬가 의미하는 이탈리아 시민사회의 특징은 바로 이와 같은 두 가지 현상과 형태로 존속하게 되었고, 이는 리소르지멘토를 거치는 긴 역사적 과정에서 형성하게 되었으며, 그 형성과정에서 ‘역사적 블록(Blocco storico)’과 같은 주요한 개념들과 접목되는 것으로 그람쉬는 보았다. 또한 이와 같은 개념들을 통하여 그는 ‘파시즘’ 분석이라든지 카톨릭에 대한 분석 등을 통하여 시민사회가 갖는 견고성 등에 대하여 자신의 논지를 주장하였다.

결국 이러한 그람쉬적 분석의 맥락에 따라 그람쉬 사후 전개되고 있는 이탈리아 사회에서도 그람쉬 분석이 갖는 유용성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서구의 다른 유럽국가들과 달리 이탈리아는 역사적 배경이 조금은 다르게 전개되었으며, 이에 대하여는 앞서 설명하였다. 국가의 영역과 함께 종교의 영역이 시민들의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나 컸던 1950년대와 1960년대의 초는 경제발전과 성장이라는 목적과 성과가 가시적으로 표출되면서 일반 사회문제나 시민사회의 역할이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국가로서 이탈리아와 사회로서 이탈리아가 갖는 불일치는 결국 사회변혁과 변화를 갈망하던 이탈리

---

하는 용어로 이탈리아의 전형적 권력관계를 나타내는 개념으로 사용된다. Ginsborg Paul. 1998. *L'Italia del tempo presente*, Torino: Einaudi, pp.192-197. 참조.

7) 19세기 후반이래 이탈리아에서 정당들이 일정한 원칙이나 기준 없이 반대파를 제거하거나 다수당이 되기 위하여 개별적으로나 집단적으로 변형시켜 외형을 바꾸는 정치양태를 가리킨다. 1882년 선거에서 데 프레티스(De Pretis)가 선거모토로 내세웠던 *Trasformarsi*에서 유래한 단어이다. 그람쉬는 리소르지멘토 기에 이미 존재하던 정치행태의 하나로 파악하였다. 그람쉬에 의하면, 대표성을 가진 마찌니가 카부르에게 지배되어 이끌리게 된 것을 빗대어서 이야기했다. 그람쉬는 변형주의를 남부 사회구조 분석에 사용하면서 중간 계층이나 지식인 계급이 어떠한 방식으로 지배계층에 편입되는가 하는 사실을 입증하고자 했다. 특히 변형주의와 후견인주의를 이탈리아 정치 상황과 이를 기반으로 한 시민사회의 가장 중요한 특징으로 보고자 했다. 한국에서 이에 대한 연구는 최장집, 1996. 『한국민주주의의 조건과 전망』, 나남, pp.203-240.; 이경일. “이탈리아 세기말 위기.” 『서양사 연구』 제17집, 4월호, p.101. 등이 있다.

아인들의 행동으로 표출되었고, 이것이 '68운동이라는 형태로 표출되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우리가 그람쉬의 시민사회 개념을 이탈리아 사회에 적용시키고자 할 경우에는 영역에 대한 범위를 분명하게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국가에 의해 협소하게 한정되어 왔고, 파시즘 체제 안에서 시민사회의 발전이 상당기간 정체될 수밖에 없었던 역사적 배경을 명확하게 이해해야만 어찌서 이탈리아 사회에서 시민사회의 형성이 다른 유럽에 비해 늦어졌고, 다소 다른 양상을 띠었던 가를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 3. 현대 이탈리아 시민사회 형성의 역사적 배경<sup>8)</sup>

종전이 되자 이탈리아는 사회적으로 커다란 변화의 순간에 놓이게 되었다. 파시즘 지배가 끝났지만 미국에 의해 군정이 시작되면서 사회구조의 혁신은 타율에 의해 좌절되었다. 파시즘 잔당들과 카톨릭은 또 다시 미국의 세력을 등에 업고 살아남을 수 있었고, 이는 이탈리아 시민사회의 발전과 성숙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결국 이 시기 시민사회의 형태는 카톨릭 등과 연계된 종교적 운동으로 나타나거나 그 반대편에서 정치적인 의미에서 진보적인 공산주의 계열의 정치운동이나 노동운동의 양상을 띠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0년대 중반 이후 이탈리아는 괄목할만한 경제발전시기를 거친다. 이 시기 경제발전 양상의 일반적 특징은 40%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농업과 여전히 전근대적 형태로 운영되는 제조업

8) 이 장의 내용 중, 이탈리아 '68운동에 대해서는 김종범, 2003. "이탈리아 '68운동의 사회적 의미비교." 제 1회 비판정치학대회, 한정연, 11월을 참조.

을 기반으로 자동차, 철강, 화학 분야 등의 중공업이 지역적으로 분화되어 발전하였다. 이와 같은 경제적 발전 이면에는 몇 가지 요인들이 자리하고 있었다.<sup>9)</sup>

그러나 이와 같은 ‘경제 기적’이라고 불릴 정도의 50년대 중반 이후 이탈리아 경제발전은 외형적인 성장 이면에 감추어진 내부분제를, 통일 후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안고 있었다. 국토의 균형적 발전을 통한 전반적인 국가발전이루지 못하고 밀라노와 토리노 및 제노바를 축으로 하여 주변 중소도시들이 중심이 된 북부만의 산업발전을 이룩하는데 그쳤다. 이 과정에서 남부의 노동력이 북부 산업지대로 유입되면서 북부 중심의 산업화는 더욱 가속화되었고, 중남부에서는 농업인구의 감소와 낮은 농업 생산성 및 토지소유 관계가 붕괴하였다. 또한 이탈리아 자본의 국내·외적 합병과 독점이 강화됨에 따라, 대규모 기업들은 국가 경제정책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이는 국가 경쟁력 강화라는 측면에서는 바람직하였지만, 국토의 균형적 발전이나 복지 지향적 국가 건설이라는 목표에는 장애가 되었다. 사회적으로 항존하던 ‘남부문제(Questione Meridionale)’라는 지역문제가 여전히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았고, 지역별로 산업적 불균형이 더해 간다거나, 기업 내의 노동자들에 대한 착취가 심화되는 부정적 측면들이 나타났다.

‘경제기적’이 가져다준 풍요의 이면에는 새로운 사회적 움직임들이 등장하게 되었다. 이는 물질적 풍요와 산업화 사회가 도래한 필연적

9) 첫 번째는 국가의 계획경제 체제가 어느 정도 효력을 발휘하였으며, 두 번째는 석탄을 대체하는 석유나 가스와 같은 새로운 에너지원이 이탈리아에서 발견되어 생산되었고, 세 번째는 남부로부터 유입된 값싼 노동력을 바탕으로 제품 경쟁력을 잃지 않을 수 있었다. 이 시기 경제발전 양상의 일반적 특징은 다음과 같다. 40%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농업과 여전히 전근대적 형태로 운영되는 제조업을 기반으로 자동차, 철강, 화학 분야 등의 중공업이 지역적으로 분화되어 발전하였다. 외형적으로도 비교적 높은 경제 성장률을 보이게 되며, 산업구조 전반에 걸친 조정으로 이어졌다. 김종법, 2003. “이탈리아 노동운동사 5- 새로운 노동운동의 성장과 발전.” 『노동사회』 6월호. 노동사회연구소, p.130. 인용.

결과였을지도 모르지만, 전세계적으로 불기 시작한 물질적 풍요와 가치의 다양화라는 동전의 앞뒤와 같은 새로운 현실은 결국 하나의 커다란 사회변혁 운동으로 나타나게 되었고, 이탈리아 역시 예외는 아니었다. 우리는 이를 '68운동이라 부를 수 있으며, 이탈리아의 경우 이러한 '68운동이 갖는 시민사회적 의의는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현대국가라고 하지만 60년대까지 이탈리아에는 매우 보수적이고 전통적인 봉건성이 남부를 비롯한 지역 곳곳에 남아 있었다. 카톨릭이라는 전통과 농업 사회 특유의 보수적 사고가 사회의 전반적 기조였고, 사회변혁운동이 아직까지 사회전반에서 활발히 일고 있던 때는 아니었다. 그러나 이탈리아 봉건적 사회 전통을 비판하고 정치, 사회, 문화 등의 여러 분야에서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려는 노력과 의도는 거대한 파도가 되어 이탈리아 사회를 휩쓸었다. 이렇게 시작된 이탈리아 '68운동의 사회적 의의는 어떻게 보면 너무나 간단한 것이었다. '모든 것이 변하였다'라는 문장으로 대변할 수 있을 만큼 사회변혁의 의미를 그대로 실현한 변화 그 자체였다.

특히 "4 P"로 지칭되던 사회 각 분야의 변화와 갈등의 폭은 컸다.<sup>10)</sup> Padre(빠드레; 아버지), Prete(쁘레떼; 신부), Partito(빠르띠또; 정당), Padrone(빠드로네; 주인)의 첫 글자를 따서 붙인 이와 같은 변화와 변혁의 대상은 당시의 사회적이고 정치적 변화의 흐름과 대상이 어떠한가를 분명하게 보여준다. 가정에서의 부모자식간의 관계, 교회에서의 사제와 평신도의 관계, 현실정치의 주역이었던 기존 정당들에 대한 불신과 정치에 대한 의식변화, 일터에서 소유주와 노동자들의 관계 변화를 수반했다. 사회 각 분야가 일순간에 변화의 물결 속에 휩싸이게 되었다. 물론 68운동이 사회변혁의 흐름으로 나타난 것은 60년대 중반

10) 68운동의 전반적 개요와 사건 및 주요 인물들에 대한 평가와 연구는 다음의 책을 참조하시오. Longo 외 저. 1986. *Dizionario del '68*, Roma: Riuniti. 등등.

부터였지만,<sup>11)</sup> '68년이 되면서 사회 각 분야에서 서로 다른 주제와 목적을 가지고 전국적 수준에서 시민단체들이 결성되었다.

당시 전국적으로 가장 뜨거운 주제의 하나는 여성해방과 관련된 주제들과 이와 관련하여 카톨릭 사회 안에서 전통적으로 반대하던 낙태와 유산, 여성 가사노동의 인정 문제였다. 이에 대한 여성들의 조직적 활동과 투쟁은 전(全)유럽의 귀감이 될 정도였으며, 이후 사회운동의 전반적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기폭제 역할을 하였다. 이외에도 동성애 문제나 베트남 전쟁을 통한 제국주의 전쟁에 대한 반대, 중국의 문화혁명에 대한 평가를 통한 사회주의의 새로운 가능성 모색, 환경문제, 제 3세계 국가문제에 대한 관심, 인권의 문제 등을 다루는 많은 시민단체들이 출범하였다. 사회 변혁이라는 의미를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회현상이자 운동이라고 평가받을 만한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다.

빠드레(Padre)로 대표되는 가정에서의 변화는 개인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후기 산업적 사회로의 재편을 의미했다. 아버지의 권위가 절대적이었던 가부장적 구조에서 가족 구성원의 평등적이고 동등한 구조로 변화되었으며, 주부들 역시 자신들의 경제적 권리를 주장하였고, 아이들은 전통에 얽매이지 않고 독립적인 인격의 주체로서 행동과 의무를 표방하였다. 당시 가정주부들은 낙태나 이혼 등의 카톨릭 금기사항에 대한 여성으로서의 권리를 요구하며 전국적 차원에서 여러 단체들을 결성했을 뿐만 아니라, 가사 노동에 대한 공식적인 노동권리를 요구하며 가정주부 역시 연금 대상이 되도록 관철하는 등 당시 '68운동의 중

11) 1966년 피렌체에서 발생한 대홍수 사건을 계기로 피해복구와 구조에 도움을 주었던 이탈리아 전체 사회의 조직적 자원봉사 단체였던 'beat'를 시작으로 이탈리아 사회 안에서 이탈리아인을 위한 국민적 공감대와 전국적 규모의 단체가 결성되었던 시점을 기점으로 잡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후 전국적 규모의 사회단체들이 속속히 결성되었고, 이들이 사회 변화의 주체로 등장하게 되면서 68년도 이탈리아 사회 전체를 바꾸는데 조직적으로 개입한다. *Dizionario del '68*, 제 1장 참조.

요한 주체로서 커다란 역할을 하였다.

교회 역시 보수적이고 지배적이던 관습과 틀을 깨고 보다 민중에게 가깝게 다가서려는 노력이 여러 단체들의 창설로 가시화 되었고, 적어도 외형적으로는 국민들의 권리요구였던 이혼이나 혼전순결 등의 윤리적 문제에 대하여는 개방적 태도를 갖게 되었다. 또한 성직자의 윤리를 강화하고 권위의식을 버리면서 성직자 역시 ‘그들 중의 하나’라는 생각을 갖도록 노력했다. 카톨릭 세력 모두 사회변화의 흐름에 지배적 입장을 버리고 일반국민들과 동등한 입장에서 참여했고, 기민당이나 카톨릭계 노동운동에도 적극 참여하는 실천적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이전까지 가장 불신을 받던 정당들 역시 변화의 흐름에서 새롭게 태어나려는 노력을 기울이게 되었다. 그러나 지배정당들은 구조적으로 여전히 잔존하는 후견인주의나 마피아와의 연계문제, 그리고 사회적 부패에 연루되었던 한계를 탈피하지 못하고 있었고, 이탈리아 공산당(PCI) 등의 야당 역시 국민들의 변화와 개혁에 대한 열망을 수용하지 못하고 지나친 정쟁과 과벌에 매달리며 국민적 관심에서 벗어나고 있었다. 따라서 사회변혁이라는 진보적 관점에서 추구된 정치개혁의 몫은 시민사회 단체들에게 넘어갔고, 다시 이와 같은 움직임은 보다 급진적이고 폭력적 수단에 호소하는 극좌 단체나 무정부주의 단체들에게 넘겨지게 되었다. 이와 같은 과정에서 결국 알도 모로(Aldo Moro) 당시 수상의 암살사건과 연루 등으로 중도에서 국민들의 관심에서 벗어나게 되었고, 정치는 보다 개혁적 계기를 기다려야만 했다.

사회 변혁의 흐름이 가장 강하게 작용했던 곳은 노동계였다. 그 어느 분야보다도 운동의 지형과 세력을 바꿔놓을 만큼 커다란 영향을 끼쳤다. 전통적 상하관계, 아니 지배와 복종이라는 표현이 더 정확할 것 같았던 노사관계가 수평적이고 대등한 관계로 진일보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했다. 특히 기존의 노동자 대표성에 심각한 의문을 가지고 노조의 기본방향에 대한 전반적 재검토를 요구하며 설립된 CUB (Comitati Unitari di Base; 하층통합위원회)은 기존 노조 활동의 재고와 함께 근본적인 전략변화를 요구하였던 당시의 대표적 단체였다.

이런 결과로 기존의 노동조합에서는 공장평의회(Consigli di fabbrica)가 조직되면서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였고, 일반 노동자들의 대표성 문제와 조직의 문제를 새로운 시각에서 조명하고자 했다. 종전의 내부위원회(Comissioni interne)를 대체하게 된 공장평의회는 각각의 분야와 직종 및 직급 등을 기준으로 직접 산출된 노조원들로 구성된 아래로부터 조직된 기구로 그람쉬의 사상에서 연유된 것이었다. 이와 같은 변화의 흐름은 결국 1969년 12월 당시 최대의 노동조합인 CIGL이 공장평의회를 내부위원회를 대체하는 공식적 노조의 합법적인 대표기구로 인정하게 하였다. 또한 이듬해 금속노조의 전체 대의원회에서는 노조의 공식적 하부구조로 승인 받게 됨으로써 노동운동 조직의 신기원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받았다.

당시 노동부문의 변화의 진원지 역할을 했던 CUB은 1968년 중순 '68운동이 한창이던 때에 주로 학생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났던 밀라노와 베네치아의 마르케라 항구 등의 대도시에서 먼저 조직되었다. 그러나 CUB은 당시 CGIL, CISL, UIL 등의 3대 노총이 지닌 근본적 문제제기에는 성공했지만, 조직으로서 항구성과 전략적 부재에 따른 한계를 곧 노출하게 되었다. 다시 말해 학생운동과 연계하여 전사회적 변화요구라는 전략에는 어느 정도 성공했지만, 노동운동 본래의 전술과 조직에서는 실패하고 만 것이다. 더군다나 3개의 기존 노총은 자신의 한계를 재빨리 깨닫고 기존의 내부위원회를 공장평의회로 신속하게 교체함으로써 기층 노동자들의 요구와 목소리를 담아내고 노동운동 안에서 영역을 사수하는데 성공하게 됨으로써 지속적인 노동운동계의

진원지가 되는데 실패하였다. 즉, CUB은 기층 노동자들의 정서를 직접 담아내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긴 하지만, 조직적 차원에서의 한계와 사업장 자치경영이라는 본래의 의도와는 달리 지나치게 정치적 성향을 띠게 되어 68운동이 끝나면서 결국 노동운동 무대에서 사라지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69운동 과정에서 노동 분야와 관련하여 가장 의미 있는 사건을 들라면 69년 가을에 발생한 ‘뜨거운 가을(Autunno caldo)’이라는 사건일 것이다. 69년 가을 금속노동자들의 계약 갱신을 둘러싸고 벌어진 노동쟁의와 파업사태가 전국적으로 노동자 대 사용자라는 큰 틀에서 대결국면을 보였던 68운동의 귀결적 사건이었다. “우리는 모든 것을 그리고 당장 원한다.”라는 모토가 말해 주듯이 노동계 전반의 근본적 문제제기와 그 해결을 요구했던 커다란 사건이었다.<sup>12)</sup>

유혈사태 끝에 체결된 합의는 먼저 Confapi(이탈리아 중소기업연합)와 체결되었고, 다시 산업경영자 협회(Confindustria)와 극적인 합의에 도달하게 되었다. 합의된 주요 내용은 주당 노동시간을 40시간으로 하며, 일정시간의 유급집회 허용 등이었다. 4개월간의 기나긴 파업과 일련의 집회는 이탈리아 노동운동사에 중요하고 전환점이 될만한 결과물을 이끌어냈다. 이듬해 국회에서 통과된 노동자 지위에 관한 법률은 전(全)노동분야에서 노동자들이 파업과 집회 및 노조활동의 권리를 부여한 법안으로 상당한 중요성을 갖는 것이었다. 공장 안에서 고용자와 노동자 그리고 노동조합 사이의 관계가 재정립되었으며, 궁극적으로 사회의 수동적 계층으로 인식되던 노동자가 능동적 존재로서 사회변혁과 진보의 주요 주체로서 자리잡았다는 사실에 68운동이 갖는 가장

---

12)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탈리아 노동운동사 5- 새로운 노동운동의 성장과 발전.” pp.132-135. 참조.

큰 의미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과정에서 철학적 배경으로 등장한 이탈리아 자율주의<sup>13)</sup>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철학적 빈곤에 시달리던 전세계 좌파 운동 진영, 특히 노동계는 후기 산업사회에서의 인간 노동의 의미를 재해석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자율주의 철학의 출현을 누구보다도 반겼다. 이탈리아 노동운동의 역사에서 자율주의가 등장하게 된 배경은 1960년대 초반 이후 인간의 노동에 대한 획일적이고 대량생산 중심의 미국적 생산방식과 관련하여 노동의 본질에 대하여 고민하기 시작하면서 부터였다. 특히 노동운동의 조직화와 기술혁신이라는 문제가 논쟁의 쟁점이 되면서 이탈리아 자율주의 철학은 시작되었다. 특히 이의 출발점은 안토니오 그람쉬가 제공한 바가 컸는데, 안토니오 그람쉬는 1929년 미국 대공황을 거치면서 “미국주의와 포드주의”라는 글을 썼는데, 이 글에서 그람쉬는 노동자와 기계 사이의 관계와 계급과 생산관계 사이의 주체문제를 다루고 있다고 이야기한다.<sup>14)</sup>

안토니오 네그리(Antonio Negri),<sup>15)</sup> 세르지오 볼로냐(Sergio Bologna)<sup>16)</sup> 등이 시작한 이탈리아 자율주의 철학의 핵심은 2차 대전 이후 국가의 생산관계와 사회관계에서 소홀히 다루어지고 빠져있던 주체가 새로이 등장하면서 자율적으로 사회의 주체로 자리잡고 사회 투쟁이나 활동

13) 이에 대하여 한국에 소개된 책으로는 세르지오 볼로냐안토니오 네그리 저. 이원형 편역. 1997. 『이탈리아 자율주의 정치철학』, 안토니오 네그리마이클 하트. 2000. 『디오니소스의 노동 I』 등이 있다.

14) 『이탈리아 자율주의 정치철학』, pp.95-115. 참조.

15) 1974년 세르지오 볼로냐와 함께 출간한 『위기의 노동자 조직』으로 노동계의 이목을 받았던 자율주의 철학의 창시자이다. 이탈리아 정부로부터 정치범으로 선고받아 수감되기도 하였으며, 이후 프랑스로 망명하여 현재 파리 8대학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주요 저서로는 『디오니소스의 노동』, 『자유의 새로운 공간』 등이 있다.

16) 역사학자이자 철학자로 1970년대 이탈리아 자율주의 운동의 이론적 지도자이자 조직가이다. 자율주의 철학 잡지 『쁘리모 마쵸(5월 1일; *Primo Maggio*)』를 창간하여 편집자를 역임했다. 노동운동에 관한 글을 여러 편 발표했으며, 특히 유명한 논문 “이탈리아의 계급 구성과 당 체제”를 써서 전세계 이론가들의 주목을 받기도 했다.

분야에서 주체로 등장하게 되었다는 사실에 이 이론은 시작한다. 특히 이와 같은 움직임은 전세계적으로 하나의 운동으로까지 평가받았던 '68운동'을 하나의 기점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이후 학교에서는 학생이, 가정에서는 주부가, 일터에서는 노동자가, 문화·예술계에서는 지식인과 예술가가 주체로 등장하여 조직과 운동의 자율적 주체가 되었다는 것이다. 즉, 모든 운동에는 자율적으로 주체가 될 수 있는 세력이 있으며, 노동자 역시 생산관계에서 주체로서 조직하고 운동한다는 것이 이 철학의 요점이다.

이와 같이 사회의 거의 전(全)분야에서 발생한 변화의 흐름과 폭이 사회변혁 차원에서 발생하였지만, 이탈리아 사회를 완전하게 바꾸지는 못하였다. 특히 정치적 개혁과 변화는 1990년대를 기다려야만 했고, 카톨릭의 변화도 느리게 진행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8운동은 이탈리아 사회를 총체적으로 바꿀 수 있는 동기와 결과들을 제공하였고, 그 동안 국가의 그늘에 가려있던 시민사회가 새롭게 등장할 수 있었다. 과시즘적 잔재를 떨치고 현대적 의미에서 민주주의 국가의 국민으로서, 또 시민으로서 정체성과 동질성을 획득하는데 시민사회가 커다란 역할을 하였다. 다른 유럽국가들과 달리 시민사회가 사회변혁의 주체로서 활발한 활동을 못했지만, '68운동을 계기로 사회변혁의 주체로서 진보적 시민단체들이 주축이 된 현대 이탈리아 시민사회의 등장이 촉발되었던 것이다.

#### 4. 진보적 사회운동 세력으로서 이탈리아 시민사회

'68운동의 여파는 컸다. '68운동을 통하여 이탈리아 사회의 보수적 명예들을 떨치고 새로운 진보성을 담보하는 조직적이고 변혁적인 시

민사회의 형성이 시작되었다. 동성애, 여성해방, 반전, 히피, 전위예술 등의 새로운 사회현상들과 개념들이 사회운동의 차원에서 펼쳐지게 되었다. 이러한 조직적 활동을 주도했던 이들이 '68운동의 주체세력'이었던 학생, 노동자 그리고 진보적 학자와 시민들이었다.

정치분야 이외에서는 진보적 성향을 가진 시민단체들이 거의 전무했던 이전의 시기와 달리 새로운 사회변혁의 주체로 전면에 등장한 세력은 이와 같은 새로운 시민단체들이었다. 이들은 정치성을 기본적인 특징으로 하면서 제각기 다른 운동의 목표들을 견지하였다. 사회의 제반문제들을 정치적인 관점에서 조직하고 운동함으로써 국가나 정당이라는 기존의 정치주체들과 다른 목표와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이들은 곧 제도권으로 흡수되어 버리는데, 그것은 수많은 파편화 된 정당들의 설립과 등장으로 설명될 수 있다. 국가의 테러와 우익의 테러를 피하기 위해, 그리고 이탈리아 정당의 전통에 우호적인 모습이 이와 같은 수많은 정당의 설립으로 나타나게 되었던 것이다.

이 시기 정치 부문에서의 또 다른 중요한 변수는 테러리즘이었다. 진보성을 견지하던 수많은 시민단체들은 국가로부터 또 군대나 마피아 또는 파시스트 등의 우익으로부터 탄압을 받았다. 70년대를 '테러리즘의 시대'라고 명명할 수 있을 만큼 테러가 사회 곳곳에서 조직적으로 자행되던 때였다. 이는 즉각적으로 사회주의 사상과 혁명적 마르크스주의를 표방하던 단체들과 조직들에서 대응적 수단으로 테러를 수용하게 되는 동기를 제공하였다. 따라서 이 시기 시민사회는 좌우의 폭력으로부터 움츠러들었던 혼란의 시기를 거치게 되었다.

70년대의 변화와 혼란의 소용돌이 속에 이탈리아 시민사회는 80년대를 거치면서 또 다른 정체기와 발전기를 동시에 맞이하게 된다. 정체적 징후를 보이게 되었던 요인은 특별한 사회적 이슈가 등장하지 않은 채 사회개발과 남부발전을 통한 국가의 경제정책에 따라 시민단

체의 활동이 이에 집중되었기 때문이었다. 이는 한동안 잠잠했던 현대적 의미에서의 후견인주의와 가족주의(Familismo)<sup>17)</sup>에 의한 전근대적 망령의 부활로 시민단체가 이익 단체화 되고, 이미 파편화 된 수많은 정당들은 개인 명망가들의 사당(私黨)이라는 길을 걷게 되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흐름과는 반대로 시민사회의 영역확장과 분야의 확대라는 발전기를 갖기도 하는데, 이는 사회의 다양성을 반영하듯 많은 분야에서 조직적이고 능동적인 역할과 활동을 시작하게 되는 대중문화의 시대의 도래를 의미했다.<sup>18)</sup> 국가의 주도가 아닌 일반 국민들과 대중들에 의해 사회가 움직이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노동 등의 분야에서 많은 사회단체들이 설립되고 활동하였다. 1987년을 기준으로 일반적으로 공인된 이탈리아 시민사회 단체들은 153개였다.<sup>19)</sup> 수적으로 그리 많지는 않지만 이들의 활동 영역은 우리나라에서 흔히 말하는 ‘진보’라는 기준에서 보자면 상당히 급진적 이념과 활동목표를 가졌다고 할 정도로 이들의 성격은 이탈리아 사회변혁의 주체로서 충분한 역량과 활동을 보여주고 있다.

이 시기 이탈리아 시민사회를 분석한 글 중에서 눈에 띄는 것은 퍼트남의 “민주주의 만들기: 현대 이탈리아에서의 시민적 전통 *Making Democracy: Civic Traditions in Modern Italy*(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3)” 일 것이다.<sup>20)</sup> 이 저서에서 퍼트남은 “이탈리아의 몇몇 지역은 활기에

17) *L'Italia del tempo presente*, pp.185-192. 참조. 여기에서 저자는 이탈리아의 전통적 행동 방식으로 가족주의를 꼽으면서 혈연과 지연 등에 얽매인 이탈리아의 전통적 가부장 제도를 가족주의로 부르고 있다.

18) 앞의 책, pp.183-185.

19) 이 기준은 단체의 목적과 의도 그리고 실제적 활동의 영역이 이익단체가 아니고 기독권 수호나 지역이익을 옹호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권리 증진과 민주주의와 사회 변혁의 원칙을 견지하는 단체들만을 선정하여 인정한 수치이다. 이에 대한 근거는 1987년 2월 26일 49호 법률 제28조에 규정되어 있다. 자료는 [www.noglobal.it](http://www.noglobal.it)에서 인용.

20) 존 에렌버그 저. 김유남 외 옮김. 2002. 『시민사회. 사상과 역사』, 아르케. pp.406-408. 참조.

찬 네트워크와 시민서약의 규범에 축복 받고 있는 반면에, 다른 지방들은 수직적으로 구조화된 정치, 분열과 고립의 사회적 생활 및 불신의 문화로 저주를 받고 있다. 시민생활에서 이러한 차이는 제도적인 성공을 설명함에 주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판명된다(존 에런버그: 406).”라고 이야기하면서, 이탈리아 북부와 남부와의 시민사회 구성의 차이점을 논하고 있다. 또한 퍼트남은 분권화 된 정부의 천년이 북이탈리아의 ‘시민 지역사회’의 활기를 설명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믿으며, 북부와 남부를 비교하면서 시민사회의 구조에 보다 적합한 지역으로서 북부를 설명하고 있다(존 에런버그: 406-407).

산업화된 북부를 이탈리아 시민사회의 구조적 측면에서 분석하고 있는 이 글에서 퍼트남의 의도와는 달리 몇 가지 한계점이 드러나고 있다. 첫 번째는 남과 북의 구조적 차이를 논하고 있는 것은 그람쉬가 이야기했던 ‘남부문제’를 의미하는데, 이에 대한 접근이 지나치게 피상적인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두 번째는 북부의 시민사회 구성원에 대한 퍼트남의 인식이 현상유지적 관점에서는 유효할지 모르겠지만, 역사적 관점에서 이탈리아 북부는 ‘이민’이라는 사회적 현상이 가장 먼저 발생한 지역이며, 사회 구성체의 성격변화를 수반할 만큼 상당한 양의 남부 노동력과 인구가 유입되었다는 사실을 간과 혹은 무시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오히려 그보다는 이탈리아 특유의 지역분권형 시민단체나 사회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근본적 원인과 분석에 보다 초점을 두었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퍼트남의 분석은 지역 시민사회 분석에 유용한 기준을 제공하고 있으며, 아울러 내부식민주론과 같은 이론적 발달의 토대를 구성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퍼트남이 지적했던 바와 같이 북부가 주축이 된 이탈리아 시민사회가 90년대 초를 지나면서 국가 체제 안에서 보다 공식적이

고 능동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정부안에서도 시민단체와의 교류나 관계를 조정하는 부서가 외무부 안에 생겼으며, 이탈리아 시민단체 자체적으로 전국적 차원에서 NGO(이탈리아어로는 ONG라고 하는데, Organizzazioni Non Governative의 약자이다) 협회의 결성이라는 전국차원의 조직화로 이어졌다. 1997년 10월 25일 수도인 로마에서 출범한 NGO 협회는 각 분야별로 시민단체를 규합하고 공동의 행동강령과 목표를 설정한 전국조직이었다. NGO 협회에서 표방한 세부적 활동목적은 크게 다음의 세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다. 첫째, NGO 상호간 활동의 협력과 조화를 통해 시민사회와 사회 기구들과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정책적 전략을 증진하고 공유한다. 둘째, NGO 이탈리아 협회를 통해 유럽의 관련 NGO와의 협력을 증진하고 분야별 연계성과 활동의 효율성을 높이며 공동의 문제에 국제적 연대를 강화한다. 셋째, 회원단체 상호간의 활동경험과 정보를 공유하며, 공동의 이익과 세력 증진에 함께 노력한다.<sup>21)</sup>

이와 같은 결속력 있는 움직임들은 실제로 2001년 Genova에서 열렸던 G8 정상회담에서 강력한 조직적 힘으로 표출되었고, 당시의 반대운동을 주도했던 Genova Social Forum은 현재에도 가장 강력하고 조직적인 반세계화 운동의 기수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이후 베를루스꼬니(Berlusconi) 정부의 대(對)노동정책의 악의적 의도에 대항하여 노조단체들과 연계한 조직적 투쟁을 이끌 수 있는 힘이 되고 있다.

이상의 서술에서 볼 때, 이탈리아 시민사회와 시민단체들의 일반적 특징은 대략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시민사회의 정치적 역할이 정당의 구성이나 기능 등과 혼용되어 있다는 점이다. 5년 주기 국회의원 선거 때마다 무려 100여 개가 넘는 정당이 설립되어 선

21) 이하 서술하는 3가지 목표에 대한 것은 [www.noprofit.org](http://www.noprofit.org) 사이트 또는 NGO 발전현장과 COCIS라고 하는 기본강령을 담은 헌장 등에서 발췌하였다.

거를 치르고, 선거 뒤에 해산하는 양상이 되풀이되고 있다는 사실은 이를 잘 설명하고 있다. 실제로 2003년 현재 공식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정당이 40여 개에 이르고 있다는 점<sup>22)</sup>은 이탈리아 시민사회와 정당의 활동이 상당부분 겹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둘째, 노동과 관련한 활동이나 이념들 역시 수많은 노조단체들에 행해지고 있다는 점은 시민사회와 노동운동의 영역이 겹치는 원인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셋째, 최근의 시민단체의 활동 목적이 주로 ‘반세계화’로 집약되는 것에서 볼 수 있듯이 국제적 연대를 통한 세계적 수준에서 사회변혁 운동을 지향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탈리아 시민사회는 다원주의적이고 이익지향적 사회 구조에서도 여전히 그 지향점을 변화와 변혁이라는 절대적 진보의 추구를 항상 지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

## 5. 맺으며

이탈리아 시민사회의 형성과 전개라는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시민사회와는 다소 다른 점들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시민사회라는 독자적 영역으로 분류되어 그 목적이나 활동방향의 중요성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시민의 자발적 조직체라는 성격을 갖는 것을 기준으로 이와 같은 단체들이 활동하는 영역을 시민사회로 분류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기준으로 보면 시민단체의 성격은 ‘진보성’이라는 전통적 방식으로는 분류되지 않는 수많은 보수적이고

---

22) 그나마 40여 개의 정당 수는 인터넷 사이트를 갖는 주요 정당만을 고려한 숫자이며, 지역 네트워크나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는 지역정당까지 합한다면 그 수는 더욱 늘어날 것이다.

수구적 성격의 시민단체가 시민의 자발적 참여라는 성격 하나만으로 이와 같은 기준에 포함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탈리아 시민사회는 시민단체의 기준이 여전히 진보이며, 시민단체의 영역 역시 정당이나 노동조합과 겹치기는 하지만 분명한 독자성을 견지하면서 이를 국가 정책이나 정당의 활동으로 채울 수 없는 곳에서 활동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최근에는 ‘세계화’라는 서구 각국의 경제적 모토를 중심으로 하는 ‘반세계화’ 운동의 구심점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국제적 연대를 통한 그야말로 시민단체의 세계화에 노력하고 있다. 국내적으로는 현재 가장 큰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 문제나 남부와 북부의 지역문제 해결 등의 분야에서 역량을 강화하고 활동을 집중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정황에서 보면 시민단체라는 성격과 기준을 보다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시민’이라는 범주에는 모든 시민을 고려할 수도 있지만, 이보다는 시민사회 본래의 이론적 근거로서 이야기하는 국가와 시민사회와의 관계를 충분히 고려하여 국가의 전환과 교체에 의해서도 무너지지 않는 보루라는 그람쉬의 서구사회 분석에서 그 이론적 근거를 삼아 시민사회가 국가의 위기상황과 전환기에도 흔들리지 않고 항상 변화와 변혁을 주도하는 주체세력으로서 그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자신의 방향성을 재정립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남과 북의 문제와 미국에 의한 안보유지라는 현재의 한국적 상황에서 시민사회의 역할이 더욱 필요한 것은 자명할 것이다. 국가의 위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시민과 국민을 지도하고 이끌어 나갈 수 있는 헤게모니 기구로서의 역할을 해야만 하는 것이다. 조합적 의미에서의 결사체들이 활동하는 영역만을 시민사회라 칭하지 않고 헤게모니의 구현 조직으로서 그리고 새로운 대항 헤게모니를 창출하며, 이를

통해 진정한 사회변혁과 변화의 흐름을 주도하는 장으로서 시민사회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시켜야 할 것이다.

이탈리아 시민사회에 대한 분석과 비교가 필요한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의미를 갖는다. 유사한 정치적·역사적 배경과 갖고면서도 다른 문화적 지형과 사회적 사건들을 겪은 이탈리아를 우리와 비교한다는 것은 우리의 역사적 배경을 긍정적으로 사회적 의미와 역할로 전환시킬 수 있는 모범으로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가능성 때문인 것이다. 이탈리아의 경우 '68운동이라는 파고를 겪으면서 이를 진정한 의미에서 사회변혁의 계기로 삼았다는 사실을 이해한다면, 우리에게 다가올 수도 있는 사회변혁의 계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간접적 답을 주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확신하며 우리 나라 시민사회의 발전이라는 측면에서도 중요성을 갖는다고 생각한다. 보다 희망적인 전망을 갖고 초심으로 돌아가서 한국의 시민사회의 모습을 정립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이 글을 맺는다.

#### 참고문헌

- 김종범. 2003. “이탈리아 노동운동사 5- 새로운 노동운동의 성장과 발전.” 『노동사회』 6월호, 노동사회연구소.
- 세르지오 볼로냐안또니오 네그리 저. 이원형 편역. 1997. 『이탈리아 자율주의 정치철학』, 갈무리.
- 안또니오 네그리마이클 하트. 이원영 역. 2000. 『디오니소스의 노동 I』, 갈무리.
- 존 에렌버그 저. 김유남 외 옮김. 2002. 『시민사회. 사상과 역사』, 아르케.
- Alberto, Caracciolo. 1977. *Stato e società civile*, Torino, Einaudi.
- Bobbio, N. 1969. *La società civile in Gramsci*, in *Atti del Convegno internazionale di studi gramsciani*(*Calgliari, 23-27, aprile 1967*), Riuniti, Roma.

Gramsci, A. 1975. *Quaderni del carcere*, Gerratana ed, Torino, Einaudi.  
Longo 외 저. 1986. *Dizionario del '68*, Roma, Riuniti.  
Muscatello, B. 1990. *Gramsci e il Marxismo contemporaneo*, Roma, Riuniti.  
Paolo, Bonetti. 1980. *Gramsci e la società liberaldemocrazia*, Bari, Laterza.  
Paolo, Farneti. 1973. *Il sistema politico italiano*, Bologna, Il Mulino.  
Paul, Ginsborg. 1998. *L'Italia del tempo presente*, Torino, Einaudi. pp.192-197. 참조,  
참고 인터넷 사이트  
[www.noglobal.it](http://www.noglobal.it)  
[www.noprofit.org](http://www.noprofit.org)

K C I